

농협 이사 선거도 '검은돈'

광주지점, 서광주농협 출마자·대의원 등 2명 구속·10명 약식기소

"선거 도와달라" 1600만원 뿌려

선거 과정에서 '뒷돈'을 주고받은 서광주농협 이사 출마자와 대의원 등 12명이 '부더기'로 기소됐다. 이 농협은 최근 3차례에 걸친 조합장 선거가 모두 '금품 선거'로 얼룩진데 이어 이번에는 이사선거에서까지 '검은 돈'이 오간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지점 공안부(부장검사 김영규)는 16일 서광주농협 이사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출마자 P(61)씨와 대의원 S(56)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C(48)씨 등 대의원 10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P씨는 농협 이사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말께 광주시 서구 유덕동 한 공원에서 대의원 S씨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현금 1천

6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S씨는 P씨에게 받은 돈 가운데 500만원을 C씨 등 다른 대의원 10명에게 50만원씩 나눠 준 것으로 드러났다. P씨는 그러나 지난해 3월 치러진 선거에서 대의원 58명 중 22명으로부터 표를 얻는 데 그쳐 낙선했다. 현행 농업조합법에는 농업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이사와 감사는 대의원들이 선출하도록 돼 있다.

김영규 부장검사는 "막대한 권한의 조합장보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이사 선거에서도 '돈 선거'가 만연된 사실이 이번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앞으로는 조합장 선거는 물론, 조합의 이사와 감사 선거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선거 비리 백화점' 서광주농협

서광주농협은 지난 2005년 이후 3번의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들이 모두 금품선거 혐의로 구속돼 불법 선거의 '온상'이란 오명을 썼다.

또 지난해 6월 선거에서 당선된 A(54)조합장 역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조합장의 '금품 선거' 의혹이 사

실로 확인돼 조합장직을 상실할 경우 서광주농협은 최근 5년간 4차례에 걸쳐 조합장 선거를 치러야 한다.

더욱이 서광주농협은 지난해 2월 대의원 선거 때도 당선자 2명이 조합원들에게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어 조합장은 물론, 대의원과 이사 선거에서 모두 '금품 선거'를 치렀다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시공업체·양식업자 짜고 보조금 5억원 '꿀꺽'

목포해경 22명 입건

육상양식장 에너지 절감시설 사업과 관련, 허위 서류를 제출해 5억원 상당의 국가 보조금을 편취한 시공업체와 안전검사도 받지 않고 시설을 설치한 양식업자들이 대거 해경에 적발됐다.

목포해경은 16일 양식장 에너지 절감시설 사업 보조금을 편취한 병·난방기 설치 시공업체 K사 대표 윤모(41)씨 등 5개 업체 5명과 보조금 지

원을 받은 양식업자 박모(51)씨 등 16명을 사기혐의로 입건했다. 또 보조금을 부당지급한 진도군청 관련 공무원 이모(36)씨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는 등 모두 22명을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시공업체와 양식업자들은 육상 양식장에 병·난방기를 설치하면서 50%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서로 짜고 허위서류를 작성해 자부담금을 투입하지 않은 혐의다. 이들은 총 사업비 중 전남도와 진도군이 지원하는 보조금 50%만으로



술집 불...소방관의 사투

16일 오후 1시께 광주시 동구 금동의 한 술집에서 불이나 소방서 추산 3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25분 만에 꺼졌다. 출동한 소방관들이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16일 오후 1시께 광주시 동구 금동의 한 술집에서 불이나 소방서 추산 3천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25분 만에 꺼졌다. 출동한 소방관들이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심야 산부인과 침입 금품 훔친 30대 검거

광주북부경찰은 16일 산부인과 병원에서 산모 보호자의 금품을 훔쳐간 전모(35·광주시 북구 두암동)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전씨는 지난달 22일 북구 두암동 A 산부인과 병원에 침입해 산모 보호자 강모(여·57)씨의 현금 20만원이 든 손가방을 몰래 가져가는 등 최근까지 두 차례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형 기자 galee@kwangju.co.kr

성범죄 '시한폭탄' 60명 광주·전남 거리에 활보

기소종지자 검거 시급

성폭행과 성추행 등 각종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경찰의 추적을 피해 거리를 활보하는 기소종지자가 광주·전남에만 60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김길태(33)가 성폭행 혐의로 수배를 받던 중에도 이모(13)양을 납치 살해한 것으로 드러나 성범죄자들에 대한 조속한 검거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광주·전남의 성범죄 관련 '기소종지' 건수는 각각 20건, 39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형법상 '강간 기소종지' 건수도 11건으로 파악됐다.

'기소종지'는 범죄의 공소(公訴) 요건을 갖추고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지만,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가 생겼을 때 수사를 일시 중

지하는 것을 말한다. '기소종지'된 피의자는 지명수배된다.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 신분을 확보하기 어려우면 '기소종지'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성범죄자들은 타 범죄자에 비해 재범 가능성이 월등히 높은 데다 범행이 계속될 수록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김길태는 성범죄로 인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인 지난 1월에도 A(여·22)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종지된 상태에서 이양을 납치·성폭행한 뒤 살해하는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또 A씨 성폭행 당시 경찰이 사건을 접수받기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면밀한 초동수사 및 검거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경찰 "성폭력 범죄자와 전쟁"

어제 전국 지방청장 회의

강희락 경찰청장은 16일 "부산 여중생 납치살해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수배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이날 오전 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전국 지방청장 회의'에서

"재범 가능성이 큰 성폭력 미검 사범을 전담검거반을 편성해 철저히 추적하고, 수사인력을 보강해 집중수사를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강 청장은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3개월간 수배자 일제검거 기간을 운영, 범법자들을 발본색원하겠다고 뜻을 밝혔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김길태 "기억 안나"...반쪽짜리 현장검증

경찰은 16일 부산 여중생 이모(13)양 납치살해 피의자 김길태(33)의 범행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이 양의 집에 침입, 납치한 혐의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고, 대부분의 범행에 대해 경찰의 재연요구를 거부해 경찰관이 대신해야 했다.

이날 현장검증은 이 양의 집과 성폭행 및 살해현장으로 지목된 무당집, 이 양의 시신을 옮겼던 빈집, 시신을 유기한 물탱크 주변, 김씨의 옥탑방, 검거장소 등 6곳에서 오전 10시부터 2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김씨는 그러나 이 양의 집에 어떻게 침입해 납치했느냐는 질문에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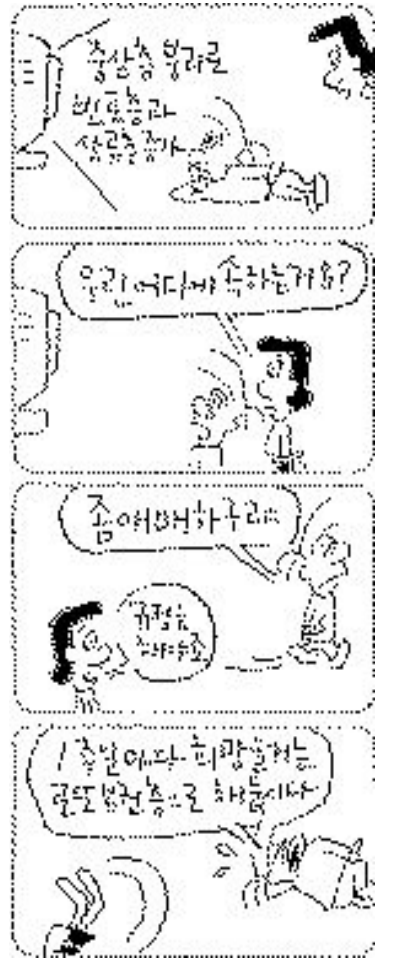
르겠다"고 답했고, 납치 당시 이 양의 옷차림(분홍색 바지, 흰색 티셔츠)을 한 마네킹을 놓고 범행을 재연해보라는 경찰의 요구에 기억이 나지 않는 다며 거부했다.

근처 옥상 등에서 이를 지켜본 주민 500여명은 김씨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고, 그의 뺨뺨한 모습에 치를 떨었다.

경찰은 이 양의 시신이 발견된 물탱크 안 비닐봉지에서 김씨와 이 양의 DNA가 동시에 검출된 후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씨가 지난해 12월 이 양이 다니던 초등학교에 들어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원침 (8063) 김장두



30대 男 모델서 숨진채 발견

지난 15일 오후 7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신안동 한 모텔 5층 객실에서 박모(35·서울시 양천구)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박씨는 숨지기 직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미안하다, 교통사고 후 많이 힘들었다"라는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겼다.

/이중형기자 galee@kwangju.co.kr

선정성 논란 지드래곤 입건유예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정필재 부장검사)는 16일 공연의 선정성 논란을 빚었던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22)을 입건유예 처분.

○검찰은 그러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와 공연팀장 정모(35)씨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공연을 기획해 관습시한 혐의(공연법 위반)로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검찰 관계자는 "지드래곤이 초범이고 스톨러의 대학생인데다 문제가 된 퍼포먼스를 정씨가 기획한 대로 공연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

○이에 앞서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2월 5~6일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지드래곤의 공연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춤동작이 음란했는지 등을 조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

/연합뉴스

PEET / MEET / DEET 전문학원

[약학대]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MDPass **의학원** 출신이 아니라면 합격은 어렵다" 이 한마디를 위해....

심화과정 개강 3월 2일 단원별 기술문제 풀이 개강 5월 3일 FINAL 이상문제 풀이 개강 7월 5일	특설1 기초시작반 2개월 완성 2011년 8월 시험 대비를 위한 기초 선수교육 이수후 개강: 3월 2일 EPR 관례에 위치한 선·재습 강사	특설2 기초영어 공인영어 2000, 2500점 고득점 취업을 위한 초·중·고·대 2~4월 기초과정 5~6월 중급과정 중·고·대간 특화된 강의 개강: 3월 8일 1월 24일, 2월 24일, 3월 24일	검정원 최고와 강사원의 박철 출강 강의 특별초빙 과목: 일반생물학 (원칙적 분자생물학 전공의 박사학위 이상의 교수님을 특별 초빙합니다)
---	---	--	--

MDPass **의학원**

광주 263-5453, 430-2200 전주 255-9119

mdpass.co.kr (광주 북구청 맞은편)